

< 성경칼럼 : 요한복음 열여섯번째 >

요한복음 15 장 을 읽을때마다 여린 가슴이 두근거리며 살짝 두렵기까지 했던 적이 있다. 아마도 그땐 열매를 맺지 못해 잘려져 나간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가 바로 '나' 라고 생각을 했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 읽는 요한복음 15 장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말씀의 의미가 평온한 마음에 두려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운 내 마음에 축복과 희망을 준다. 어디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

요한복음 15 장에는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 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작은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더 작은 의미로는 성령안에서의 삶이다. 난 그렇게 보고 싶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참포도나무인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부는 가차 없이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고 했다. (2) 여기서 '붙어 있다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일까? 만약 그렇게 단정을 지어 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수님은 분명히 강조해서 자신을 '참포도나무' 라고 하지 않았는가? (1)

가지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기 전에 구원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게 된다. 안 그렇겠는가?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드려야 예수님의 정체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그래서 해석하기를 붙어 있었다는 것이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고.. 진짜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붙어 있었던 것이라고 규정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 수 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할까?

좀 다른 각도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어떨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원 받은 열매'가 없으면 무자비하게 잘려 나가 버린다는 관점에서 보지 말자! 오히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모두가 좋은 가지이지만.. 다만 붙어 있어도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삶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이견해는 '내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4) 라고 하신 말씀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의 결과와는 다르다.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수도 없을뿐더러 구원도 보장 못받는 가지인 것이 분명하다. (4,6) 그렇지만.. 2 절의 가지는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인거다. 무엇이 다른지 알겠는가?

필자는 젊은 시절 요한복음 15 장의 말씀을 읽을때마다 두렵고 괴로웠다. 왜냐하면 흑백 논리를 가지고 '하나의 가지' 만을 보니 '다른 가지' 가 있다는 가정의 상황을 발견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2) 와 '붙어 있지 아니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4) 를 확실히 가늠하지 못했던 거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붙어 있든지 붙어 있지 않든지 '두 다른 가지' 모두 잘려 나간다는 것이다. 무엇이 다를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 없는 가지' 는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다른 가지를 위해서 깨끗히 잘려 나간다. (2) 반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 는 아무런 희망 없이 버려져 말라버리면 결국 불에 던져 진다는 것이다. (6) 이 다름은 희망과 절망의 차이요.. 축복과 저주의 차이이다. 오~ 주여..!

나와 당신은 어떤 '가지' 일까? 스스로 물어 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의 모든 부분을 과감히 잘라 내야만 한다. 아주 싹둑 싹둑.. 잘라 내야 한다. 구원을 받고 확신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구석진 부분이 무엇일까? 내 스스로 잘라 낼수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깨끗히 잘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2,3)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드러 낼 수 있는 삶의 부분들이 더 많이 빛나지 않을까? 만약 당신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라면 그 비참한 결과를 알았은즉..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버림을 면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요한복음 15 장을 읽을때마다 이제는 마음이 편하다. 왜 그럴까? 나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한 삶의 부분이 있어 매일 잘라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때문이다.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가 구원의 문제 혹은 전도라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안에 있는 삶' 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난 그렇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 날마다 삶의 거짖과 모순을 잘라내고 살고있다. 당신은 어떤가?